

나태, 사랑하지 않는 죄

January 11

• 역대하 29:6-11

나태를 뜻하는 헬라어 ‘아케디아’는 ‘돌보지 않다, 무책임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백성이 ‘게을러’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비법이나 요령’을 찾습니다. 힘든 길은 가기 싫고, 대가를 치르기도 싫기 때문입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변의 소리를 듣습니다(잠 22:13). 그러나 인생살이에는 어떤 비법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적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옵니다(대하 29:7-9; 삼상 1-4장).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 나태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과 민감성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대하 29:6; 마 25:26). 하나님과 단절되면, 인간은 이 기적으로 사고하게 되며 결국 모든 관계가 파열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태의 특징은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태한 사람은 알려고 하거나 신경 쓰거나 즐기거나 미워하거나 추구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할 의지는 없고, 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강합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나태를 가리켜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 있는 죄”라고 했습니다.

게으름의 반대말은 근면(diligence)입니다. 근면이란 단어는 사랑하다(diligere)라는 라틴어로부터 왔습니다. 즉, 나태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도,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사명도,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과 관계들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계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지만 마음과 열정은 거기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할 일을 하면서도 정작 우울하고 지루해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삶은 나태합니까?
근면(사랑)합니까?

- ① 관계, 사명, 일상 등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 ② 내 삶에서 ‘하지 않음’으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